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곰 이든 비룡 이든 'V10 제물'로 쓴다

KIA vs 두산		
7	승	12
4.94	방어율	4.58
0.250	타율	0.286
19	홈런	13

KIA vs SK		
10	승(2무승부)	7
3.75	방어율	3.76
0.248	타율	0.254
25	홈런	14

■ KIA 한국시리즈 상대 두산-SK 누가 편할까

두 팀 만만한 상대 아니지만 우승 자신

상대팀 분석…막강 선발·한방 승부 채비

'철벽방어'의 SK,'뚝심'의 두산을 놓고 KIA의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다.

두산이 롯데를 제압하고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되면서 오는 7일 부터 두산과 SK의 불꽃 튀는 플레이오프 한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한국시리즈 상대팀 후보가 SK와 두산으로 압축되면서 KIA의 한국시리즈 계산도 그만큼 세밀해졌다.

올 시즌 상대전적만으로는 SK가 손쉬운 상대다. KIA는 SK에게 10승2무7패를 거두며 우위를 점한 반면 두산에게는 7승12패로 열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SK와의 경기에서 느끼는 KIA 선수단의 중압감은 7개 구단 중 최고다.

지난해 KIA는 4승14패로 SK에 승을 헌납했다. 올 시즌 박경완·김광현 두 핵심 배터리의 부상속에 상대전적에서 앞설 수는 있었지만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SK의 공세는 늘 부담스럽다. 전력이 다듬어진 후반기 SK는 프로야구 최다연승인 19연승으로 시즌 마지막까지 1위 자리를 위협하며 KIA의 기를 질리게 했다.

올 시즌 KIA 투수들은 SK에 가장 많은 180이닝을 투자했다. 한 경기 평균 9.47이닝을 소화한 셈이다.

두 차례 무승부를 기록한 양팀은 6월24·25일 연속해서 12회 연장승부를 벌이는 등 4번이나 12회까지 피말리는 싸움을 했다. 1점차 승부도 5차례에 이를만큼 SK와의 경기는 전쟁과도 같았다.

'막강 선발진'과 '철벽 계투진'으로 대변되는 KIA와 SK의 마운드는 상대 타선을 상대로 각각 3.75와 3.76의 방어율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SK 공략법은 한방이었다. 김원섭의 끝내기 역전 만루 홈런, 나지완의 대타 만루 홈런, 이재주의 대타 스리런 등 올 시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홈런은 모두 SK전에서 터져나왔다.

기동력을 앞세운 두산은 '뚝심'의 야구로 KIA를 상대로 12승을 챙겼다. 에이스 윤석민이 출격했던 두산과의 개막전에서 5-7로 역전패를 당한 뒤 KIA는 6월2일까지 두산전 6연패를 기록했다. 4월21일과 22일 1점차 승부에서 마운드를 넘겨받은 마무리 한기주는 이틀 연속 두산에 난타를 당하며 2경기 연속 패전투수가 됐다.

윤석민도 두산의 뚝심에 자존심을 구겼다. 올 시즌 두산전에 5번 출전한 윤석민은 7.07의 방어율로 1승2패를 거두는데 그쳤다.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달 5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는 3과3분의 1이닝동안 10실점을 하면서 2년 연속 노리던 방어율왕의 꿈이 무산됐다. 시즌 10승에 도전했던 윤석민은 이날 등판 이후 어깨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가 여전히 재활중이다.

두산전 12패중 6패는 역전패였다. 고영민을 필두로 한 테이블 세터진이 KIA의 마운드를 흔들면서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곤 했다. 두산의 뚝심에 흔들린 마운드는 4.94로 7개팀 중 가장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다.

두산 공략은 마운드에 달렸다. 불펜진의 난조로 역전패가 많았지만 선발진의 높이는 KIA가 앞선다. 특히 로페즈는 8번의 등판에서 2.44의 방어율로 3승1패를 거뒀다. 2승이 완투승이고 완투패도 한 차례 기록했다.

'창과 방패'의 대결로 표현되는 두산과 SK의 플레이오프. '정규시즌 승자' KIA의 전술도 양팀의 승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일 새벽(한국시각) 이집트 수에즈 무바라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C조 3차전 한국과 미국 경기에서 한국대표선수들이 3-0으로 승리하고 나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U-20 월드컵 8강 간다

美에 3대0 승… 내일 새벽 파라과이와 16강 대결

'선배들의 한을 풀고 파라과이를 제물 삼아 8강에 오르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6일(한국시간) 새벽 3시 이집트 카이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남미의 '복병' 파라과이와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 대결을 벌인다.

미국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3-0 대승을 낚으며 '죽음의 C조'에서 탈출한 젊은 태극전사들은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신화 재현을 위한 8강 길목에서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

한국은 20세 이하 대표팀 전적에서 파라과이와 네 차례 맞붙어 1승1무2패로 박빙의 열세를 보였다. U-20 월드컵에서는 3차례 대결에서 한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2무승부1패에 그쳤다.

파라과이는 A조에서 개최국 이집트를 2-1로 꺾고 이탈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각각 0-0으로 비기는 등 세 경기 1실점을 '짠물 수비'를 보여주며 조 2위로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했고 남미 축구의 장기인 개인기를 앞세운 쉽지 않은 상대다.

파라과이의 골문을 열 선봉장으로 박희성(고려대)이 변함없이 선발로 출격할 전망이다. 카메룬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김동섭(도쿠시마)을 대신해 주전 자리를 꿰찼던 박희성은 미국과 3차전에서 천금 같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장신을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다. 골 결정력 부족이 과제로 남아있으나 왼쪽 허리를 다친 김동섭이 최상의 컨디션을 찾지 않은 상태라서 홍명보 감독의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홍명보 감독은 독일, 미국과 조별리그 2, 3차전에서 재미를 봤던 4-2-3-1 전형을 그대로 쓸 계획인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듀오인 '더블 볼란테'는 주장 구자철(제주)과 문기한(서울)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수문장 김승규(울산)는 변함없이 골문을 지킨다.

■ 한국-파라과이 예상 라인업

공격형 미드필더는 '왼발 달인' 김보경(홍익대)이 맡는다. 김보경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담 키커로도 활약한다. 하지만 좌우 날개와 포백 수비라인은 오른쪽 풀백을 맡았던 오재석(경희대)의 부상 여파로 연쇄적인 자리바꿈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광주 11경기 연속 무승

전남도 전북에 덜미

K-리그

추석 프로축구 경기에서 전남과 광주가 승리를 선물하지 못했다.

광주 상무는 4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2009 K-리그 정규리그 26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하며 11경기 연속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최근 11경기 전적이 1무10패가 된 상무는 9위까지 추락하며 6강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놓였다. 반면 상무를 제물 삼아 승점 3점을 추가한 울산은 알미르와 김신욱의 연속골에 힘입어 7위로 올라서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전북 현대와의 '호남 더비'를 치렀던 전남 드래곤즈도 0-2의 패배를 당했다.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북과의 경기에서 전남은 곽태휘의 자책골과 최태욱의 쐐기골에 0-2로 무릎을 꿇었다.

25라운드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4경기만에 귀중한 승리를 챙겼던 전남은 이날 승점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승점(34점)·득실차(-1)가 같은 인천 유나이티드를 득점에서 앞서며 5위에 자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

추신수 20호 투런

亞선수 첫 '20-20'

'추추 트레인'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정규 시즌 폐막을 1경기 앞두고 '호타준족'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를 마침내 달성했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출장, 4-10으로 끌려가던 7회초 무사 1루에서 폴 버드의 바깥쪽 컷 패스트볼을 퍼올려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펜웨이 파크의 트레이드마크인 '그린 몬스터'를 훌쩍 넘긴 대형 홈런이었다. 녹색의 벽으로 거대한 펜스를 의미하는 '그린 몬스터'의 높이는 11m나 된다. 지난달 2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 이후 닷새 만에 시즌 20번째 홈런을 터뜨린 추신수는 이미 도루 21개를 기록, 풀타임 출장 첫해에 20-20 클럽 가입이라는 큰 성과를 남겼다. 메이저리그 전체를 따져도 전날까지 20-20을 달성한 선수는 홈런 26개, 도루 34개를 작성한 맷 켐프(LA 다저스)를 비롯해 11명에 불과했다. 추신수는 장타력과 빠른 발을 겸비한 클리블랜드의 간판 타자로 미국 전역에 다시 한번 이름 석 자를 크게 알렸다.

4타수2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타율을 0.300(종전 0.299)으로 끌어올려 3할 타자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을 이어갔다. 또 타점 3개를 보태 86타점으로 팀 내 1위를 지켰다.

클리블랜드는 6-11로 패했다. /연합뉴스